시끌벅적 e-스타

"먹는 거 가지고 장난 하는 거 아닙니다"

플래스틱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성도 짓고, 집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장난감이 있다. 어린 시절 한번쯤 푹~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해봤을 조립 놀이, 어른들에게도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하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조립놀이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 이유는 조립대상이 장난감이 아니라 통닭이라는 것.

준비물은 간단하다. 양념통닭과 이쑤시개만 있으면 통닭 조립을 할 수 있다.

맥가이버의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동영상에 등장한 손은 먼저 대충 다리와 날개를 위·아래에 분류해 놓는다. 그리고 따로 분류해 놓은 부위를 차례차례 쌓아가면서 이쑤시개로 통닭을 고정해나간다. 그렇게 하나하나 조각이 합쳐지면서 통닭이 완성된다.

완성된 새콤달콤 양념통닭 조립은 바싹바싹 프라이드 치킨 조립과 비교되기도 한다. 두 완성품을 비교한 결과 바싹한 프라이드가 양념통닭에 비해 날씬하다.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앞서 프라이드 치킨으로 조립을 시도해본 경험자다. 그때 경험을 살려 '프라이드 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친다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신 네티즌분들의 진정 어린 충고 감사합니다… 조립하고 친구들과 다 먹었습니다'는 애교의 글도 함께 올렸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은 "이런! 정말 한 마리 인지 궁금해 하기는 했었지만 조립해 볼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덕분에 한참을 신나게 웃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재밌네요", "우리 동네는 날개가 3개던데. 가끔 목이 없기도 해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용수의 팝스 칼럼

가치있는 삶은 무엇인지… 숀 필립스 음악 들어라

인간이 가진 가장 집요한 에너지는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다. 희망과 욕망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외로움일 때가 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가수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 친구처럼 함께 해 줄 수 있는 목소리의 소유자, Shawn Philips 이다.

Shawn Philips(숀 필립스)는 록 음악의 개척자로 일컫어진다. 그의 음악적인 뿌리가 진솔함이 담긴 포크음악에 있는데 여기에 클래식과 블루스, 재즈를 접목시켜 실험적이며 초현실적인 음악을 하고 있다. 그가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가 연주하는 Malaguena를 듣고부터이며 7살 때 이미 기타를 만지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세계를 여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양한 음악적인 경험과 영감이 축적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노랫말은 소설가이자 시인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16살 때 텍사스로 돌아온 그는 포크 음악에 관심을 갖고 22살이던 1965년 데뷔 앨범을 발표하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다시 유럽으로 가 3장의 앨범을 발표하지만 역시 무명 가수일 뿐이었다. 다시 미국에 돌아와 소속사를 A&M레코드사로 바꾸고 70년 'Contribution'에 이어 71년에 발표한 그의 명반 'Second Contribution'은 수백만 장이 팔렸다. 18개의 앨범 중에서 4개의 앨범이 빌보드 Top 100에, 4개의 싱글곡이 Top 40에 링크가 되었다. 40년이 넘게 음반 녹음과 공연을 한 그는 유니버설 레코드사로부터 2002년에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econd Contribution'에 수록된 잔잔한 기타 연주와 숀 필립스의 보컬이 어우러지는 명곡 'The Ballade Of Casey Deiss'를 들을때면, 그의 음악적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정화되면서 한없는 카타르시스와 오로라 빛 환상에 휩싸이게 된다. 12줄 기타 연주와 잔잔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 곡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면의 그림을 얻고자 했던 케이시라는 청년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비추어 주는 빛을 갈망하다가 천둥 번개가 치는 어느 날 밤, 나무를 잘라 자신만의 따스한 집을 꾸미려다 번개 속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가 빛으로 착각한 번개는 자연에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강렬한 열망이자 인간의 욕망에 경고를 보내는 신의 메시지이기도 할 것이다.

숀 필립스는 자신의 음악은 내면의 자아를 감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며 아름다움과 추함, 그 모든 것을 음악으로 감싸주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포크의 느낌 속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자기 독백적인 그의 음악은 세상의 모든 것을 태초의 깨끗함 그 자체로 정화시켜버린다. 때문에 그의 음악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 그 자체로 받아 들여진다. 그의 음악이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음유시인 숀 필립스의 음악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따뜻한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 하나는 평생 음악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방차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여가를 이용해 응급 구조 요원으로도 활동을 한다. 상업성과의 타협을 거부하면서도 숀 필립스가 지금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위한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의 음악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팝칼럼니스트·광주교통방송 '낭만이 있는 곳에'진행자〉

리빙 센스

김무침 만들기

눅눅해져 버린 김을 이용해 아주 간단하게 색다른 반찬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김 10장, 대파 조금, 홍고추 반개, 진간장 1큰술, 식초 0.5큰술, 설탕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①김을 살짝 구운 다음 봉지에 담은 채 잘게 부수어 놓는다.

②대파와 홍고추를 잘게 채썰어 그릇에 담아놓는다.

③준비된 양념을 모두 섞어서 양념장을 만든다.

④그릇에 잘게 만든 김을 넣고 양념장을 붓는다. 채썰어 놓은 대파 홍고추도 넣어 함께 무쳐내면 김무침이 완성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9일(음 4월 25일 己巳)

子 36년생 투자는 내일로 미루고 일단은 관망하라. 48년생 신중 하면 좋으리라. 60년생 애인과 다툴 수도있으니 말을 예쁘게 하라. 72년생 중인의 협조가 새롭게 나타난다. 84년생 나이를 잊고 자신 있게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10, 45

丑 37년생 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매사를 경계하라. 49년생 관재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을 아끼라. 61년생 매사에 신중하면 손해를 막는다. 73년생 부부간에 다툴 수도 있다. 85년생 좋은 협조자를 얻어 빠른 진행을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33

寅 38년생 이웃 동료와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50년생 득과 실이 들고나니 매사에 조심하라. 62년생 직업과 자식이 불리해지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74년생 부부사이에 믿음을 주라. 행운의 숫자 : 08, 25

卯 39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필히 실리를 추구하라. 51년생 오늘은 평안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라. 63년생 바라던 목표에 주변의 협조를 얻으니 금상첨화로다. 75년생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마음 깊이 돌아보라. 행운의 숫자 : 05, 26

辰 40년생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내라. 52년생 불연이면 화를 면치 못하니 주변을 보살피고 나누어 가져라. 64년생 사소한 실수로 관재가 있을 수도 있다. 76년생 화해를 먼저하고 실리를 찾아보라. 행운의 숫자 : 13, 37

巳 41년생 불안한 마음을 버리면 뜻한 대로 되리라. 53년생 자기 일에 집중하면 윗사람의 도움이 있다. 65년생 우물쭈물 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77년생 착실한 활동이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6, 29

午 42년생 목표를 크게 갖고 힘껏 뛰면 큰 재물이 들어 올 수도 있다. 54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생각보다 결과는 크리라. 66년생 희망찬 하루가 되리라. 78년생 새 문서를 잡고 큰 기쁨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19, 40

未 43년생 근친자의 중상모략을 만날 수 있으니 조심이 절실하다. 55년생 많은 수양이 필요한 하루다. 67년생 미리미리 준비하면 체면만큼은 유지한다. 79년생 생각했던 일들이 착실하게 추진된다. 행운의 숫자 : 07,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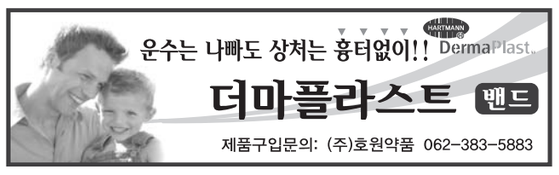
申 44년생 문서로 고민거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신중하라. 56년생 좋은 물건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 주의함이 좋으리라. 68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80년생 좋은 소식이 멀리 전해진다. 행운의 숫자 : 15,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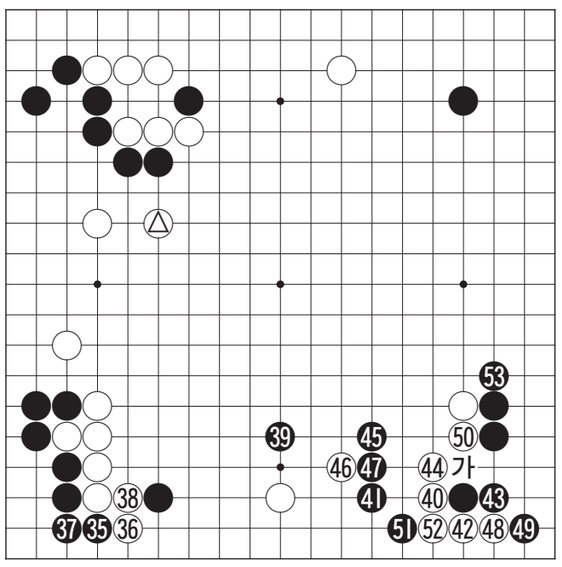
酉 45년생 오늘은 인내함이 좋으리라. 57년생 일마다 방해가 있으니 주변 먼저 단속하면 문제는 적어진다. 69년생 규모축소 집안단속 매사에 주의하라. 81년생 쌍방이 양보하면 쌍방이 이득이다. 행운의 숫자 : 09, 30

戌 46년생 급격한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8년생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되리니 단단히 각오하라. 70년생 뜻밖의 협조자가 나타나나 본인이 중심이다. 82년생 새벽녘의 손님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1, 34

亥 47년생 재물이 새고 있으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득리를 찾아라. 59년생 즐거움 속에 걱정도 끼여 있다. 71년생 절처봉생 급박한 상황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생긴다. 83년생 용기로 진행하면 달성은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20, 3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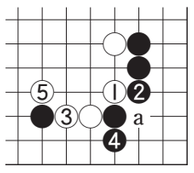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白, 무심의 실착

3보 (35~53)

白 허우석 5단 (북구청)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백 △는 좌변을 키우면서 상변을 간접 보강하는 좋은 수. 그러나 지금은 흑 35 자리에 내려서는 것이 더욱 급했다. 박광주 5단이 잽싸게 흑 35로 젖혀 이어 버리자 백이 갑자기 엷어지고 있다.



〈참고도〉

기세를 탄 박광주 5단이 흑 39로 호방하게 모자를 씌워오자 허우석 5단은 실책을 깨닫고 백 40으로 붙여 역습에 나선다. 이때 박광주 5단이 또다시 흑 41로 협공하며 기세를 올렸는데 이 수는 기분에 치우친 수로 그냥 '가'에 받아두는 것이 정수였다.

허우석 5단은 상대가 역공해 오자 무심코 백 42로 젖히고 말았는데 이 수가 성급한 수로, 당연히 '참고도'의 백 1로 위에서 젖혀야 했다. 흑 2로 받으면 3이 선수로 5까 흑 한점을 제압해 대성공이다. 또 흑 4로 5자리로 올라서는 것은 'a'로 끊겨 흑이 망한다. 이 기회를 놓치고 53까지 쫓기게 되어서는 일찍부터 백이 고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민진 거침없는 4연승

이민진 5단이 28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본선 9국에서 한철균 7단을 격파하며 4연승을 달렸다. 248수만에 거둔 불계승이었다.

물 오른 이민진의 실력은 초읽기에서 더욱 빛을 냈다. 한철균이 초읽기에 쫓겨 실수를 하는 동안 이민진은 차분하게 실익을 챙기며 승리를 따냈다.

이민진은 이번 대회에서 차민수 4단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는 것을 비롯해 박영찬 3단, 권갑룡 7단, 한철균 7단을 차례로 물리쳤다. 이민진은 29일 김종수 6단을 상대로 5연승에 도전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 SINAN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70>

I heard John sick

존이 아프다고 하던데

A : I heard John sick.
B : Yes, he's not doing too well
A : What does he have?
B : Bronchitis.

A : 존이 아프다고 하던데.
B : 응, 썩 좋은 편은 아냐.
A : 어디가 아프다든가?
B : 기관지염이라네.

* do well : 건강상태가 좋다.
* 카우보이팀이 슈퍼볼에서 이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 I heard the Cowboys won the Super Bowl.
* 메리가 아프다던데.
= I heard Mary got sick.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70>

碁(ご)をうつのが好きす。

바둑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A : 山田さんの趣味(しゅみ)は何ですか。
B : 特(とく)に, これと言ったものはないんですが, 碁(ご)をうつのが好きす。
A : 私は音樂(おんがく)が好(す)きで, ピアノをよく彈(ひ)くんですよ。
B : ピアノですか, うらやましいですね。私は音樂は苦手(にがて)ですから。

A : 야마다씨 취미는 무엇입니까.
B : 특별히 이렇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바둑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A : 나는 음악을 좋아해 피아노를 자주 칩니다.
B : 피아노 말입니까. 부럽군요. 나는 피아노는 잘 못하니까….

趣味(しゅみ) : 취미
特(とく)に : 특히, 특별히
彈(ひ)く : 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쫑구워 <147>

金老师在不在家?

김 선생님 집에 계십니까?

A: 喂! 是2345678吗?
wèi shì 2345678 ma
웨이 스 2345678 마
B: 是。
shì
스
A: 金老师在不在家?
jīn lǎoshī zài bú zài jiā
진라오스 짜이 부 짜이 지아
B: 他不在。
tā bú zài
타 부 짜이

A: 여보세요. 2345678입니까?
B: 네.
A: 김 선생님 집에 계십니까?
B: 안 계십니다.

喂 [wèi] 여보세요
在 [zài] (집이나 장소 등에)있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787>

狼子野心(낭자야심)

이리 랑, 아들 자, 들 야, 마음 심

낭자야심(狼子野心)은 '야심(野心)'이란 말의 전거로, 이리새끼의 야성(野性)이란 뜻이다. 야심은 본래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난폭함을 의미하였으나, 지금은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소망을 의미한다.

이 말은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투자문(鬪子文)의 일화에서 유래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태어난 뒤 바로 들판에 버려졌는데 호랑이가 거두어서 기르던 중, 뒷날 그를 발견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며 데려다 길렀다고 한다.

투자문은 뒤에 초나라의 재상이 되어 법 집행을 엄정하고 공명하게 처리하여 백성과 왕의 존경과 신임을 받았다. 투자문은 그의 동생인 자량(子良)의 아들 월초(越椒)를 보고 "저 애를 어서 죽여라. 곰과 범의 형상을 하고 승냥이와 이리의 소리를 내니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집안에 화를 가져 올 것이다. 속담에 이리새끼는 마음이 늘 들판에 있다고 하지 않더냐(狼子野心). 이 아이는 이리인데 어떻게 기를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동생은 아들을 죽일 수 없었고, 월초는 성장하여 20년간 재상 직에 있었으나, 결국 왕을 죽이려는 모반을 꾀하다가 일족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월초의 '낭자야심'으로 투자문의 집안은 그가 염려한 대로 큰 재난을 당하였던 것이다. (春秋左氏傳)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